



멕시코의 봄, 시민운동의 기록

알 다비 올베라

자동차와 자전거, 꼭두각시인형과 가면, 플래카드와 현수막으로 빼곡히 들어 찬 멕시코시티의 대로에서 분노가 넘실댄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하기 그지없는 행진에 모두가 함께 한다. 그들을 지지하는 천과 침대보와 판지가 내걸린다. 빵집 발코니에 걸려 있는 “나는 132번째! (#Yosoy132)”,¹⁾ 음식점에 걸려 있는 “나는 132번째!”, 사무실에 걸려 있는 “나는 132번째!”. 3년 전 해고당한 국영전력회사 노동자들, 2년 전부터 거리를 누빈 인권평화운동가들, 500년 동안 내몰리고 핍박 받은 원주민 활동가들과 농민들이 모여든다. 꼬맹이부터 어른,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함께 한다. 어르신들이 던지는 한마디, “젊은이들, 계속 하게나! 자네들이 이 나라의 희망일세!”

1) 2012년 7월 멕시코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멕시코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베로아메리카대학(Universidad Iberoamericana)은 학생과 대선후보 간의 간담회를 준비했고, 5월 11일 제도혁명당(PRI, 이하 ‘PRI당’으로 표기함)과 녹색당 연합후보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가 대학을 방문했다. 본 글에서 밝히듯이, 이베로아메리카대학 학생들은 페냐 니에토 규탄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에 대해 PRI당과 주요언론은 “이베로아메리카대학 학생이 아닌 듯한” “한 무리의 집단”이 “폭력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몰아갔고, 심지어 경쟁후보 측의 배후조정이라는 설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위에 참여했던 이베로아메리카대학의 학생들이 학생증을 보여주며, 페냐 니에토와 그를 감싸는 언론플레이를 비난하는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131명의 이베로아메리카대학 학생이 동영상을 올리며 차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이베로아메리카대학을 넘어서 수많은 공립, 사립대학생들이 “나는 132번째”라는 구호를 사용하며 페냐 니에토 반대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옮긴이.



[**marcha halconazo](#)

마리아 달릴라 차베스 로드리게스(María Dalila Chávez Rodríguez) 촬영

응축된 정치적 감성과 사회적 힘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룡이 이런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 올해 공립대학교에서 입학할 거부당한 학생 대표들이다. 이 새로운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하는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 멕시코국립대학교(UNAM), 국립과학기술원(IPA), 메트로폴리탄대학교(UAM), 멕시코기술원(ITAM), 예술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차례차례 제각각의 동기에 따라 그 뒤를 따른다. 때때로 서로 맞서기도 했을 상이한 세계들이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겹치고 연결된 채 꿈틀거리고, 날카로운 지성은 분노를 일으키며 한 곳을 겨냥한다. 바로 캐리커처가 되어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인물, 엔리케 페냐 니에토이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드라마 속 인물이라 칭했던 불량품 같은 인사. 그러나 TV방송매체, 연방선거관리위원회(IFE), 각종 투표와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현직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마저 응당 마쳐야 할 선거과정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멕시코의 대통령으



2012년 7월 12일 반 페냐시위
마리아 달릴라 차베스 로드리게스 촬영

로 추대한 인물이다.

“페냐는 물러가라, 페냐는 물러가라!” 국립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외치면, “페냐는 아는가? 국민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한 무리의 페미니스트들이 외친다. 이런 구호는 이제 고전이 되었다. 언론재벌 텔레비사(Televisa) 계열의 매스컴이 개입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냐 니에토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후보이던, 민주혁명당(PRD, 이하 ‘PRD당’이라고 약칭한다) 소속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던 그때, 대규모 학생 그룹이 페냐 니에토의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 방문에 맞춰 시위를 벌였다. 이제는 검은 금요일이라 불리는 그 날, 발 디딜 틈 없는 강당 앞에서 페냐 니에토는 2006년 멕시코 주(州)의 산 살바도르 아텐코 주민들에게 휘둘렀던 공권력 남용을 변명했다. 고속도로 점거가 공권력 행사의 이유였다. 사망자 2명과 26건의 성폭력이 발생했고, 206명이 체포되었으며, 체포자 일부는 고문을 당했고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멕시코 주 주지사로서 임기 첫 해를 맞이한 페

냐 니에토를 압박한 사건이다. 아텐코 사건에 정의를 요구하는 11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물론이고 예술가, 지식인, 활동가, 시민들까지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도 페냐 니에토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도, 20세기 멕시코가 그랬던 것처럼, 요지부동이였다.

“엘비스 뒤에 비열한 대머리가 있다네!” 수도사와 흡혈귀로 분장한 젊은이들이 외친다. ‘엘비스’는 헤어젤을 유난히 많이 바르는 페냐 니에토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열한 대머리’는 전직대통령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를 일컫는데, 시위대가 들고 나온 피켓, 캐리커처, 가면에서는 살리나스 가 뒤에서 페냐 니에토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완벽한 대변인이자 멕시코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일등 공신인 살리나스는 1994년 사파티스타 봉기를 진압한 후, 자기 가족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과 야유를 뒤로 하고 멕시코를 떠났다가, 이제 언론의 가십거리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때를 기억하는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를 거부한다. 젊은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에는 “살리나스가 페냐(끈덕) 지게 당신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구운 옥수수를 먹고 있는 청년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프리(PRI)노사우르스에게 NO를!”이라고 적혀 있다. 살리나스와 페냐 니에토 둘 다 72년 동안 헤게모니를 쥐고 멕시코를 지배한 정치조직인 PRI당 소속인 것이다. 멕시코의 지식인 로렌소 메예르는 혁명 카우디요의 손에 넘어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1917년 제도혁명당이 출발했다고 본다. 페냐 니에토를 날카롭게 비판하다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중에 별세한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소설 『가장 투명한 지역』에서 뛰어나게 묘사한 것처럼 진보에 대한 단일화된 규칙을 만들어 낸 것은 신화적 인물인 프란시스코 비야와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아니라 그들을 살해한 알바로 오브레곤과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였다.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서 인생을 바꾼 세 권의 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PRI당 후보 페냐 니에토의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겨냥하여— “우려스러운 것은 그가 내 책을 읽지 않았

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지함으로 나라를 이끌고자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느 펑크족 청년은 신호등에 “PRI-RIP” 문구를 찍는다. PRI는 죽음과 동의어이다. 특히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의 반향이 전해지는 한편, 내적 요인에 의해 학생운동이 멕시코의 경직된 정치형태를 문제 삼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러하다. 당시 대통령이던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는 지금 페냐 니에토가 그렇듯이 학생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디아스 오르다스가 내민 손 뒤로는 곤봉과 총이 있었고, 1968년 10월 2일 오후 군대는 틀라텔룰코의 삼문화광장(정복 이전의 원주민문화, 식민시대문화, 근대문화라는 세 가지 문화를 상징한다)의 집회에 모인 학생들을 강경 진압했다. 2005년 런던 BBC 방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그 진압으로 200~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멕시코인들에게 역사적 기억으로 선명하게 새겨졌고, 호세 레부엘타스,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 카를로스 몬시바이스, 페르난도 델 파소, 로베르토 볼라노 같은 작가들은 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명했다. 그 사건 이후 “10월 2일을 기억하라, 알코나소를 기억하라!”는 구호가 자리를 잡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68년부터 정치적 억압이 가속화되었다. 1971년 산 코스메에서는 PRI당에 우호적인 ‘알코나소’라는 준군사조직이 100명 이상을 살해했다. 수십 년 동안 침묵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억압하는 ‘더러운 전쟁’이 1985년 대지진까지 계속되다가, 지진으로 시민의식이 깨어나자, 1988년 부정선거가 뒤를 이었다. PRI당에서 갈라져 나온 좌파 사회주의자 쿠아우테묵 카르데나스를 밀어내기 위해 공모된 선거였다. 그는 라사로 카르데나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 후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와 에르네스토 세디요 정권이 뒤를 이었고, 사파티스타 봉기에 대한 ‘저강도 전쟁’, 1995년 게레로 주 경찰의 손에 17명이 목숨을 잃은 1997년 아구아스 블랑카스 학살, PRI당 편에 선 준군사조직이 자행한 학살로 45명이 살해된 악테알 학살이 뒤를 이었다. 2000년 정권교체로 PRI당 물

러나고 보수파인 국민행동당(PAN, 이하 PAN당)이 집권하자, 이제 마약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지금 시위대의 티셔츠에는 “내가 PRI당을 물러나게 했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다.

그리고 PRI당은 물론이고, PRD당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PAN당의 집권 12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7만 명의 사망자와 불안에 떠는 60만 명의 주민, 만 명의 실종자, 6천 2백만 명의 빈곤층이 생겨났다. 80년 동안 계속된 PRI당 정권 아래 벌어진 것보다 더 심각해진 폭력사태이다. 멕시코 주와 치와와 주에서 벌어지는 여성학살과 베라크루스의 언론인 살해는 물론이고 두랑고 주(州)에서 발견된 구덩이에서는 마약조직이 살해한 후 파묻은 수십 구의 시신이 발굴되었다. 하지만 페냐 니에토는 오랜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콜롬비아 경찰청장 오스카르 나랑호를 치안관련 고문으로 임명했으니, 마약범죄조직과 벌이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페냐 니에토는 치안유지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 것이다.

“낙하산 대통령이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플래카드에 적혀 있다. 영국언론 《가디언》과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따르면, 4년 전부터 텔레비사가 페냐 니에토를 뉴스, 대담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대가로 PRI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런 낙하산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PRI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표를 사는 스캔들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맞서 선거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이런 상황에 맞서 학생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부정선거 전면거부”는 가장 최근에 나온 슬로건으로, 선거 다음날 생겨나, 최근 몇 주 동안 시위에 등장하고 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말했던 15포인트가 아니라 7포인트 차이로 득표율 2위에 머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700장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PAN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대표행위를 비난하면서도



2012년 7월 22일 등장한 부정선거 고발 플래카드
마리아 달릴라 차베스 로드리게스 촬영

PRI당의 구조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에너지, 보건, 조세, 노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다. 이러한 유럽식 긴축정책에 맞서 학생 세력뿐만 아니라 전 사회운동 세력이 산 살바도르 아텐코에 모여 전국대회를 가졌다.

모두가 생각하듯, 9월 첫째 주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페냐 니에토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전국대회에서는 그 날 정치적 파업을 조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9월 16일 멕시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다른 방식의 축제가 열릴 것이다. 10월 2일에는 틀라텔룰코 학살을 추모할 것이며, 페냐 니에토의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될 12월 1일은 아마도 수만 명의 국민이 의회로 모여드는 투쟁의 날이 될 것이다.

멕시코의 봄을 향해 나가는 이 기록에 마침표를 찍는 오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차폴테펙의 텔레비사 사옥에 운집하듯이 말이다. 언제나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상징적 봉쇄행위는 경고의 의미이지만, 선거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와 합쳐지면 단호해진다. 정말이지, 이제 텔레비사

는 이제 대부분 편파적 입장만을 대변한다. 페냐 니에토가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를 방문한 후, 20세기 후반 내내 PRI당과 결탁해온 방송 계열사의 시사평론가들은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의 시위대가 학생이 아니라 좌파 후보의 배후조정에 따라 잠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텔레비사 보도에 반발하며, 시위대는 5월 23일 첫 번째 텔레비사 항의 방문 때부터 “나는 책을 읽지만 텔레비사는 보지 않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여기까지 구호가 계속 들려온다.

“TV를 끄고 생각을 켜세요!”

이제 멕시코에 봄이 왔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 “나는 132번째, 나는 132번째”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학생운동은 선거결과에 반발하며,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PRI당의 구체제를 묘사하면서 쓴 “완벽한 독재”를 재현하려는 PRI당과 페냐 니에토를 저지할 수도 있다. 이제 대중매체가 호응하고 있고, TV는 꺼져 있고,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들고 있다. 예전에는 침묵했고,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던 무관심했던 거리에서 1968년, 1971년, 아텐코가 회자된다. 이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노인들은 광장에서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봄은 살아있는 기억이며, 역사를 다시 읊는 것이며, 러시아의 영화인 세르게이 아이젠스타인이 50년 전에 증언한 것처럼 갈등이 아닌 비판의식을 가지고 멕시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엮어내는 방식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다. 이제 이 새로운 등불로 멕시코가 가진 허점에도 불구하고, 폭력에도 불구하고, 페냐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박수경 옮김]

알 다비 올베라(AI Davi Olvera) - 멕시코 여러 문예지에 에세이와 단편소설을 발표하였고,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이다. 현재 멕시코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이다.

박수경 -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자치 대학교(UAM) 박사과정 재학.